

尹 재구속에 국민의힘 “국민께 송구”… 민주당 “사필귀정”

송언석 “전직 대통령 재구속 사태
수사·재판, 법·원칙따라 이뤄지길”

민주당 “철저한 수사·단죄의 시간
우리 국민,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

대통령실 입장 없어… 민생행보 몰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은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특검팀에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맞이한 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다. 우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재구속 소식 직후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 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같은당 배현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면서도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 다들 아실 테고, 실제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게) 1번으로 압수수색이 될 줄은 아마 다들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

속에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이며,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알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외환죄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러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대행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이제 다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변호인들을 시켜 관련자들을 압박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에게는 내란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

다. 이제 짐수는 그만 부리고, 반성하며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내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란다. 내란죄 우두머리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특검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3특검법이 넘어온 후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지만, 그 후에는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3특검 임명장 수여식도 열지 않았다. 특검의 독립성과 더불어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 특검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도) 공식입장은 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됐을 뿐,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될 예정 아니냐”며 “(재구속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정청래·박찬대’ 2파전으로

당 대표 후보등록 서류 제출

정청래 “강력한 개혁 당 대표 되겠다”
박찬대 “李 대통령과 호흡 맞춰 일해”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정부 집권 초기 개혁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당 대표 후보 등록을 10일 받았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차례로 여의도 중앙당사에 차례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다음달 선출될 당 대표는 임기 2년으로 이재명 정부 초기 사법·언론·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공전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임 당 대표가 임기를 잘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연임에 도전한다면, 23대 총선 공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를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선출한다. 오는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에서 권역별



박찬대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후보자 등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권역별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진행한다. 전당대회(제2차 임시당원대회)는 8월 2일 토요일에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당 대표 출마의 이유와 포부를 밝히는 온라인 국

민보고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럴 때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움은 제가 할테니, 대통령은 일단 하라”며 “언론·검찰·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권리당원의 민심을 호소하기 위해 ▲전당대회 1인1표제 실현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및 당원주권위원회 신설 ▲당원교육 강화 ▲당원 포상제 확대 및 당원 콘서트 실시 ▲당원 정책 박람회 연 1회 개최 등을 공약했다.

박찬대 의원도 후보 등록 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라

는 큰 나무 곁에서 원내대표로 개혁국회를 이끈 것은 저의 가장 큰 자량”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큰 숲에서 여당 대표로 가장 든든한 나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이재명 대통령 가장 곁에서 호흡을 맞춰 일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가 저 박찬대”라며 “더 강화된 당원주권도, 성공적인 국정운영 뒷받침도, 개혁 입법도, 내란 청산도, 지방선거 승리도 진짜는 박찬대”라고 말했다.

전날(9일) 여야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한 내란중식특별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국민 혈세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헌정을 파괴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면서 “내란법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내 부고발자는 형사처벌을 감면토록 하고 반대로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영구히 제한하겠다”며 “사회적·정치적·법적으로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李 대통령 “폭염에 취약계층 고통 없도록 대책 신속집행”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났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117만 명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가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신속 집행해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축 폐사 급증에 대해서도 “축산농가들의 고통이 큰데, 소방차나 가축방역 차량 등을 활용해서 급수를 조속

하게 실시하고, 발 빠른 재난안전 특고세 지원을 통해서 차광막이나 송풍 팬, 영양제 등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재난 대응팀을 구성해 달라”며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한다든지,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등의 대책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예진 기자

국회 첫 여성 기재위원장에 임이자 선출

(국민의힘 의원)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 보이겠다”

국회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3선·경북 상주시 문경시·사진)이 10일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이자 의원을 기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상정해 총 투표수 242표 중 210표 찬성으로 의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은 후임 기재위원장으로 임 의원을 내정했다.



임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오늘날 국회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가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치 본령인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기재위 최초 여성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